

중고등학생의 에이즈豫防教育을 통한 에이즈知識과 性意識變化에 關한 研究

권관우* · 이경무** · 김정순***

*한국 에이즈퇴치연맹,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Change of AIDS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AIDS Prevention Education

Kwan-Woo Kwon*, Kyoung-Mu Lee** and Joung-Soon Kim**

*Korean Anti-AIDS Fede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IDS is worldwide problem. It has threatens societies and is potentially a big problem among youth. UNAIDS has warned that collective global responses are necessary; with half of the newly infected be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1998, educating youth below age 24 is essential. Because of both their unexpected, strong sexual activities and an easier tendency to change their behavior than adults, UNAID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education for youth. In Korea, 4 cases of HIV infection have officially been reported among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ing the potential seriousness of HIV infection among youth, the Korean Anti-AIDS Federation (KAAF) began an education programme for Korean youth (middle & high school pupils) as one intervention method in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education programs performed and to develop a better programme. The intervention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mainly a lecture in a big or small auditorium or through broadcasting systems using audio-visual teaching aids. The period of this survey was from Nov. 10 to Dec. 26. in 1998. The subjects surveyed were 792 pupils who were sampled from 12 different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by a two-stage cluster sampling. Self-record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paired t-test to compare the knowledg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method. A chi-square test to compare the consciousness difference between pre-post-education results was used, and an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knowledge difference among the selected group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IDS knowledge significantly changed after AIDS prevention education. (2) The direct lecture in a big or small auditorium is more effective than an indirect lecture through a broadcasting system or through audio-visual teaching aids. (3) Those who had not seen obscene materials (e.g. pornography films, magazines etc.) acquired much more knowledge than others after AIDS prevention education. (4) Those who had no girlfriend/or boyfriend acquired much more knowledge than the others after AIDS prevention education. (5) As to the attitudes toward chastity, more girls than boys and students who had not seen obscene materials rather than those who already had were liable to support the statement: "all should remain chaste" and their consciousness on "being chaste" changed much more than that of others after intervention. (6) As to the individual evaluation of lectures, 23.1% shows "very good", 44.1% "good", 26.9% "normal" '-' thus, the

positive evaluation was to 94.2%. The negative response was 5.8%. (7) As to the desire for AIDS education sponsored by KAAF in the future, more than 90.5% showed a positive reaction. (8) As to the educators in future education methods, pupils wanted lecturers from outside their school. (9) Student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seen obscene materials much more than other groups 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d a girlfriend/or boyfrien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as well. (10) 90% of those who watched obscene materials responded that they experienced these materials while at middle school and 100% before reaching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11) The number of boys who have experienced obscene materials is twice as many as that of girls. (12) The percentage of boys who have a girlfriend is much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girls who have a boyfriend. (13) Among those who have friends of the opposite sex, 11.1% say that they have had sexual contact and 20.8% have experienced kissing and caressing.

I. 서 론

1. 에이즈의 세계적 발생상황

1998년 말 현재 약 4,700만명 이상의 세계인구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을 일으키는 에이즈원인 병원체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되었다. 이중 1,390만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생존하고 있는 3,340만명도 언제든지 에이즈로 발병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나 발병해 있는 실정이다(UNAIDS, 1998). 현재까지는 완치되는 특효약이 개발되었거나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 전파가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위험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와 UNAIDS(Joint United Nations Pro-

gramme on HIV/AIDS)에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이지만 2000년이 넘으면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에이즈 피해가 있을 것으로 경고해왔다. 인구가 많고 예방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 지역으로 에이즈발병 중심지가 이동할 것이라는 지적은 적중하여 벌써 인도와 태국 등지에서는 에이즈가 창궐하여 700만명이 넘는 아시아인이 감염되어 있다(UNAIDS, 1999).

아시아지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에이즈 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에이즈감염률이 남아시아 및 남동 아시아지역이 0.69%,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이 0.068%, 중앙아시아지역이 0.14%로 나타나고 있다(표 1) (UNAIDS, 1998).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많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 많아 청소년들의 접촉과 성풍 속이 문란한 틈을 타서 광범위하게 위험한 성행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에이즈방역체계는

표 1. 세계지역별 HIV/AIDS 현황

1998년 말

지 역	유행시작시기	생존 HIV/AIDS	'98 새로 감염 HIV/AIDS	성인 감염율	감염인종 여성비율	주감염경로(성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0후-'80초	2,250만	400만	8.0%	50%	이성애
북아프리카 및 중동	'80후	210,000	19,000	0.13%	20%	마약, 이성애
남 및 남동 아시아	'80후	670만	120만	0.69%	25%	이성애
동아시아 및 태평양	'80후	560,000	200,000	0.068%	15%	마약, 이성애, 동성애
라틴 아메리카	'70후-'80초	140만	160,000	0.57%	20%	동성애, 마약, 이성애
カリ브해	'70후-'80초	330,000	45,000	1.96%	35%	이성애, 동성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90초	270,000	80,000	0.14%	20%	마약, 동성애
서유럽	'70후-'80초	500,000	30,000	0.25%	20%	동성애, 마약
북아메리카	'70후-'80초	890,000	44,000	0.56%	20%	동성애, 마약, 이성애
호주 및 뉴질랜드	'70후-'80초	12,000	600	0.1%	5%	동성애, 마약
합 계		3,340만	580만	1.1%	43%	

표 2. 우리나라 에이즈 연도별 발생현황

구 분 계	'85-'92	'93	'94	'95	'96	'97	'98	'99*	비 고
총감염인	918	245	78	90	108	102	124	129	42
남자	801	218	71	78	89	90	107	111	37
여자	117	27	7	12	19	12	17	18	5
환자	140	10	6	11	14	22	33	35	9
									사망 138 생존 2

*'99년 3월 말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위험지대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문화가 외부적으로 진존하지만 감각적인 청소년들의 향락풍조가 성인들의 문란한 행태를 앞서 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며 이중적인 문화구조의 허점 속에서 에이즈가 쉽게 만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가 취약지대로 분류되기도 한다.

2.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현황

우리나라는 1999년 3월말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보고에 의하면 HIV 총감염인수는 918명이며, 감염경로 조사결과 89%는 성접촉에 의한 것이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남녀의 성비는 약 7:1이라고 발표했다. 아래 표는 연도별 발생현황(표 2)과 연령별, 성별 현황(표 3), 그리고 감염요인별 현황(표 4)이다(보건복지부, 1999).

우리 나라에서는 '98년 고교생이 성접촉을 통해 에

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는 공식 보고된 성접촉을 통한 고교생 에이즈 감염인으로는 네 번째이며, 동성애에 의한 사례로는 지난 '89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초·중·고·대학생 등 학생에 에이즈 감염인이 '98년 상반기에만 벌써 4명으로 급증해, 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표 3. 우리나라 에이즈감염인 연령별, 성별 현황

1998년 말				
연령구분	전체수	남자	여자	비 고
합계	918(202)	801(181)	117(21)	
0-9	4(2)	4(2)	—	
10-19	22(1)	20(1)	2	
20-29	308(33)	266(30)	42(3)	*연령은 발견당시
30-39	326(80)	286(71)	40(9)	*(*)는 사망수
40-49	170(53)	147(46)	23(7)	
50-59	68(23)	60(21)	8(2)	
60 이상	20(10)	18(10)	2	

표 4. 우리나라 감염인의 감염요인별 현황

합 계	성접촉					수혈			혈액 제제	수직 감염	약물 주사	기타	역학 조사중
	소계	국외	이성	국내	이성	동성애	국내	국외					
918(100)	780(85.0)	245(26.7)	340(37.0)	195(21.2)	10(1.1)	11(1.2)	17(1.9)	1(0.1)	—	62(6.8)	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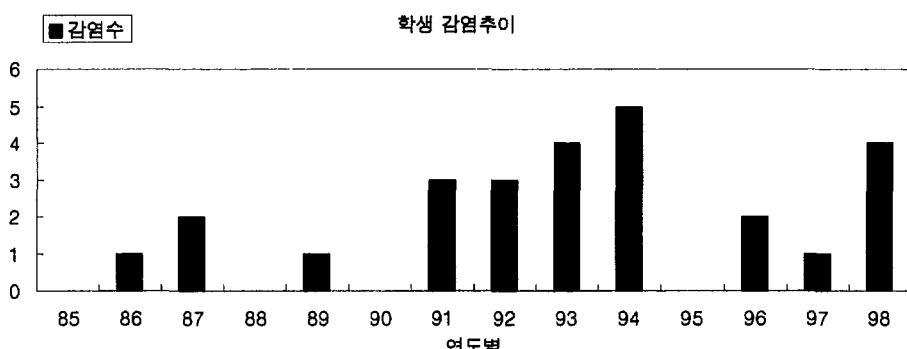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학생 감염 추이.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보건복지부, 1999)

최근 들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편의성에다 청소년의 감각적인 문화가 편승하여 누구나 쉽게 친근해지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적인 교류가 육체적인 접촉으로 전전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금을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고 직장취업이 곤란해짐에 따라 남녀학생들이 쉽게 유혹업소에 몸담는 추세가 늘어났다. 가출을 했거나 돈을 벌고자 하는 여학생들이 단란주점에 쉽게 발을 들여놓는 추세이다. 이렇게 되는 유인(誘引) 요소 중 주된 것은 다른 곳과 달리 단란주점내에서는 육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육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이 어린 여학생들까지 성향락산업에 유입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함정(陷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되고 있다(권관우, 1999).

3. 연구의 필요성

UNAIDS에서 청소년 대상의 에이즈예방과 퇴치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바, 우발적으로 성행동을 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예방교육의 필요성은 가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UNAIDS, 1998).

세계적으로도 1분에 11명의 남녀, 어린이가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며, 그 중에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1분에 6명꼴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 UNAIDS/WHO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1998년도에 1년동안 세로이 감염된 580만명에서 600만명 중 약 반정도가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다. 그 중에는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60만명이고 250만명이 15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다.

현재 지구상에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 3,340만명의 9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의 대부분이 노동력과 출산연령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이다.

UNAIDS에서는 특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 소녀들 사이에 성관계가 급증하고 있어 큰 걱정이라고 말하고 카리브해 연안 4개국의 경우 초등학교 아이들 중 40%가 10세 이전에 첫 성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루에서는 14세에서

16세 미혼모의 90%가 강간피해자들로 이중 과반수가 아버지 또는 다른 친척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UNAIDS에서는 무방비상태에서의 성행위와 마약의 정맥주사가 HIV에 감염되는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집중캠페인 표어를 “듣고(Listen), 배우고(Learn), 살자(Live)”로 제정했다. 듣는다는 의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과 에이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화를 통해 듣는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의미는 같은 동료로부터 또는 어린이는 어른으로부터, 어른은 어린이로부터, 감염인은 다른 감염인으로부터, 서로 서로 존경과 동참, 지지 그리고 예방활동 및 감염인 차별방지에 대하여 배우자는 것이다. 살자는 의미는 에이즈 감염이나 확산이 없고,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청소년층이 가장 에이즈확산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교육이 시급하다고 UNAIDS는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같이 예방과 퇴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UNAIDS, 1999)

첫째, 청소년들이 최근 에이즈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에이즈 유행에 감수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에이즈 유행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수억(數億)명 이상의 인구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거대한 청소년 인구의 에이즈 예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막대한 인적, 경제적 비용낭비와 손실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인생의 경험무대에 아직도 서 있기 때문에, 출발단계에서부터 성인들보다 훨씬 쉽게 안전한 행동을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낙인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친절과 도움을 이미 감염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만약 청소년들이 성인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에이즈 확산유행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청소년대상 에이즈예방 교육시기에 대하여 이정은

(1994)은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이 성행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기라고 보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성행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에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경균(1996)은 첫 성경험시기를 보면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4.9%, 중학교 76.7%, 고교 18.5%이며,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12.0%, 중학교 62.7%, 고교 25.3%로 첫 성경험을 하는 시기가 남녀공히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아 남녀 모두 성을 경험하는 학생은 중학교때 첫경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중학교 1학년부터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다.

에이즈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3가지 요인으로 '정보와 교육', '보건과 사회서비스', '지지적 사회환경'을 들 수 있는데(김정순, 1998), 이 중 '정보와 교육'으로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홍보, 계몽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학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인구의 올바른 보건교육이 한 나라의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의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손인숙, 1997).

이처럼 중요한 에이즈예방교육을 주 목적사업으로 삼고 에이즈의 심각성과 폐해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에이즈를 근원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1993년도부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하 '연맹'이라고 부름)이 창립되면서 "에이즈는 예방홍보교육이 특효약이다"라는 정신으로 에이즈예방홍보교육을 실시해 왔다. 1998년도 까지 총 2,293회의 강연을 통해 908,317명을 교육한 바 그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필요성은 초기부터 제기되어 부정기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대중홍보교육에 대한 간단한 평가사업을 서울지역 성인 및 중 고등학생 등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1998년 말에 실시하게 되었다.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년에 약 350여 회 약 20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맹의 에이즈 예방홍보교육대상의 일부인 서울 시내 중 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성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변화된 지식과 성의식 정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계획의 방향, 교재개발, 강사교육, 교육방식의 선택 등 교육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에이즈에 대한 교육전과 교육후의 지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 2) 에이즈에 대한 교육전과 교육후의 성의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 3) 에이즈전파경로와 관련성이 큰 이성친구와 성행태에 대해서 파악한다.
- 4) 에이즈예방교육의 평가를 한다.
- 5) 에이즈예방교육의 보완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1998년 11월과 12월 2개월동안 연맹이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중·고등학생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충화한 후 12개 학교를 집락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반단위로 2단계 집락표본으로 추출하였다(R. L. Scheaffer et al., 1996). 최종적으로 충화 2단계집락표본 추출방법을 통해 792명의 중·고등학생표본을 얻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에이즈교육을 실험변수로 하여 에이즈교육전후의 지식과 성의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영향평가로서 교육받지 않은 대조군을 두지 않고 보건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전후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보건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순검사전후설계를 사용하였다.

조사방식은 설문조사로 하되 설문조사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방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훈련된 전문강사가 실시하였다. 우선 대상자 모두에게 '설문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전문강사가 에이즈예방교육을 40분에서 50분 가량 실시하고 나서 '설문지'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박형종, 김공현, 김광기, 1997; 박형종, 임재운, 김

대회, 1997; 김화중 외, 1997).

설문지는 총 900부를 배부하여 792부의 적절한 자료를 얻었고,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1998년 12월 26일까지 46일간이었다.

3. 에이즈교육방법

연구대상자인 중, 고등학생에게 강당에서는 전교생, 학년별 등의 대규모집단별로, 시청각실에서는 1개 반에서 수 개 반 단위로, 방송실에서는 전교생 또는 학년별로 강의를 하였으며, 강의는 슬라이드 환등기를 사용한 시청각교육으로 직접 강사가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송실에서 할 때는 방송실내에서 실시되는 슬라이드강의 장면을 활용하여 각 교실에 있는 모니터에 전송하여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방법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방법별 효과를 주된 관점으로 하지 않고 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전후의 에이즈 지식차이와 성의식변화를 주로 분석을 하기로 한다.

4. 자료처리방법

자료분석은 SAS 6.12를 이용하여(김충련, 1994), 다음과 같이 하였다(이승욱, 1994).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식, 태도, 성의식, 교육후 반응과 평가, 희망 등을 파악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교육전후의 에이즈지식의 차이가 있는지는 쌍체비교 T검정법(Paired T test)을 사용하였다(유의수준 0.05).

(3) 각 변수별 응답군 사이의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나는지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고, 두 군간의 차이는 Duncan, LSD, HSD검정법 등으로 다중 비교하였다(유의수준 0.05).

지식차이검정에 있어서 <교육전후의 지식차이> 자체가 정규분포하지 않지만 표본수가 일정수 이상이며 모수적방법(ANOVA)과 비모수적방법(Kruskal-Wallis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교육전후의 성관계 의식 변화와 다른 응답군 등의 차이가 있는지는 카이자승 검정법을 사용하였다(유의수준 0.05).

(5) 연구 대상자의 이성친구와 성행태 및 교육평가

부문은 카이자승검정법을 사용하였다(유의수준 0.05).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학년별 분포

학생 연구대상자는 중학생, 인문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군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각 군별로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중학생군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인문계고교생군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7과 같다.

실업계고교생군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8과 같다.

표본추출과정에서 교육일정을 본 연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곤란한 현실적 문제로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다보니 연구대상이 인문계고교 3학년 남학생이 없으며, 실업계고교 3학년 남학생과 고 1학년, 3학년 여학생이 없고 고 2학년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168명을 차지했다. 이에 표본추출의 문제가 제기될

표 5. 중고등학생 연구대상자의 성별분포

	대상수(명)			백분율(%)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중학교	101	113	214	47.2	52.8	27.0
인문고	97	182	279	34.8	65.2	35.2
실업고	131	168	299	43.8	56.2	37.8
합 계	329	463	792	41.5	58.5	100

표 6. 중학생 성별·학년별 분포

학년	대상수(명)			학년	백분율(%)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33	36	69	1	47.8	52.2	32.2
2	34	39	73	2	46.6	53.4	34.1
3	34	38	72	3	47.2	52.8	33.6
소계	101	113	214	소계	47.2	52.8	27.0

표 7. 인문계고교생의 성별·학년별 분포

학년	대상수(명)			학년	백분율(%)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63	66	129	1	48.8	51.2	46.2
2	34	63	97	2	35.1	64.9	34.8
3	0	53	53	3	0	100	19.0
소계	97	182	279	소계	34.8	65.2	35.2

표 8. 실업계고교생의 성별·학년별 분포

학년	대상수(명)			학년	백분율(%)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68	0	68	1	100	0	22.7
2	63	168	231	2	27.3	72.7	77.3
소계	131	168	299	소계	43.8	56.2	37.8

수는 있겠으나 실제 학년간 차이는 학군간 차이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되어 표본 대표성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듯 하다.

2) 교육장소별 분포

연구대상자에 대한 교육장소는 그림 2와 같이 강당이 19.2%, 시청각실이 12.9%이며, 방송실이 전체의 67.9%로 2/3를 차지하였다. 방송실 교육은 방송실 안에서 슬라이드 강의를 하고 그 장면을 각 학급으로 방영하여 비디오처럼 보는 '화상교육' 형식이다. 대강당과 시청각실에서는 직접 학생들을 앞에 놓고 전문강사가 슬라이드 환동기를 사용하여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형식을 일컫는다. 이 교육장소별로 교육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는 에이즈 지식차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실제 학교 시설중 대강당의 경우 시청각교육을 위한 극장식 강당도 있지만 체육관같은 장소도 있어 교육적으로 음향이나, 채광 등의 문제로 효과가 문제되기도 하며, 시청각실의 경우는 소규모 반단위의 교육으로 강당과는 달리 집중력 향상이나 분위기 조성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대강당의 경우 슬라이드 화면이 대형화하여 청중을 압도하여 시각효과가 탁월한 점도 있다. 그러나 학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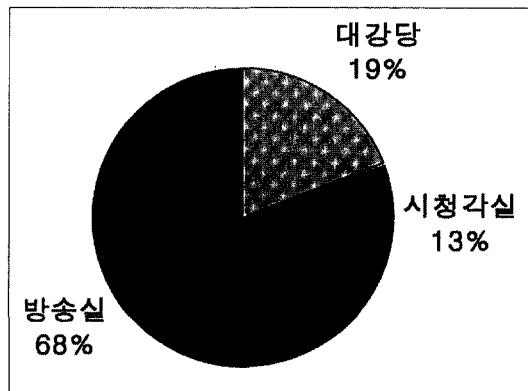


그림 2. 교육장소.

서는 에이즈예방교육을 위한 시간 할애와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편의에 의해 단번에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당교육이나 방송실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교육효과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교육장소별 그리고 교육방법별 교육효과에 대한 타당하고도 신뢰성 높은 연구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3) 기존 에이즈예방교육에 대한 응답

에이즈예방교육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43.4%가 받은 적이 있으며, 56.6%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별 분포는 그림 3과 같이 양호교사 등을 통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67%로 2/3을 차지했고, 외부 기관이 21.4%로 이 중에는 연맹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가 11.5%였다.

교육받은 강의 방식은 비디오시청이 55.7%, 토론식강연이 12.1%, 수업식 강의가 10.9%, 음성강연이 10.6%, 슬라이드 강연이 7.8%, 기타가 2.9%로 그림 4와 같이 응답했다. 이 기준의 교육 중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비디오매체를 사용한 교육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슬라이드강연중의 다수는 연맹에서 실시한 홍보교육으로 추정된다.

교육효과는 보통이 59%, 대체로 좋았다가 17.1%, 매우 좋았다가 5.8%로 보통이상이 81.7%인데 비해



그림 3. 기존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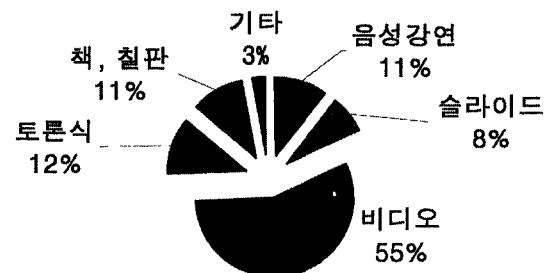


그림 4. 기존 교육방식.

대체로 안 좋았다가 11%, 매우 안 좋았다가 7.2%로 18.2%가 안 좋았던 것으로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기존교육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대체로 정규분포하는 형태로 '보통임'이 가장 많은 일반적인 형태로 나와서 기존교육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에이즈예방교육과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이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맹에서 실시하는 본 교육의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자의 성행태

1) 음란물 접촉에 대한 응답

대상자의 52.2%(400명)에 해당하는 과반수가 음란물에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언제 처음 보았느냐에 대한 설문에 그림 6과 같이 가장 많은 학년은 중학교 2학년때가 48.4%이며, 그 다음이 초등학교 5학년 15%, 중학교 1학년 12.3%, 중학교 3학년 7.9% 등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중에 학년을 명기하지 않고 중학교라고만 한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라고만 한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간주하여 통계처리한 결과이므로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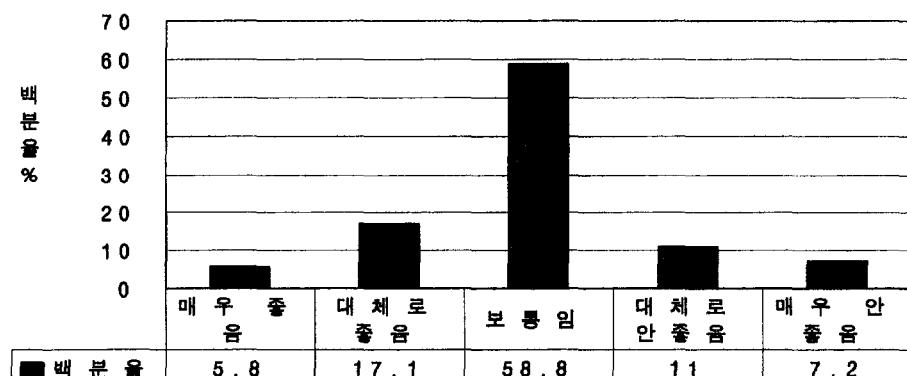


그림 5. 기존교육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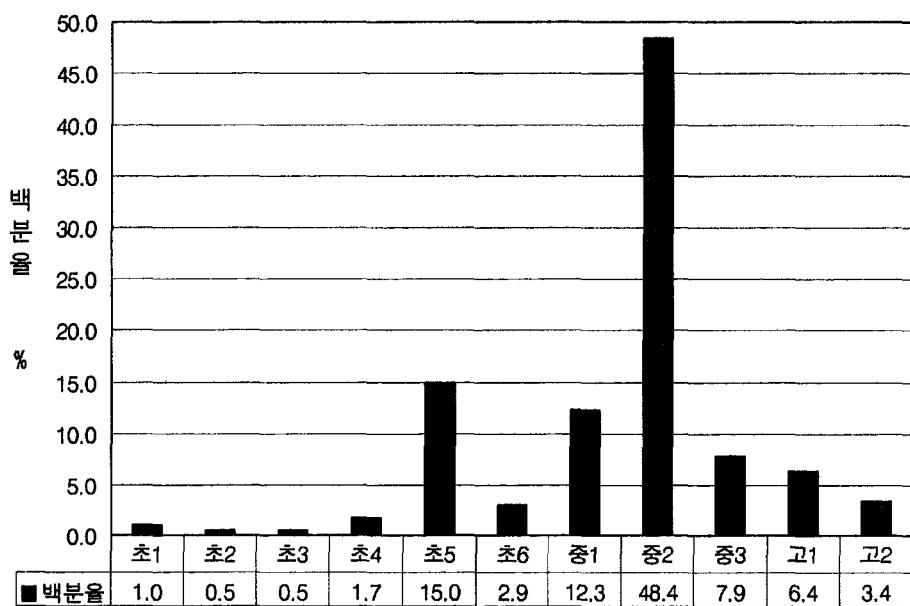


그림 6. 최초 음란물접촉시기(학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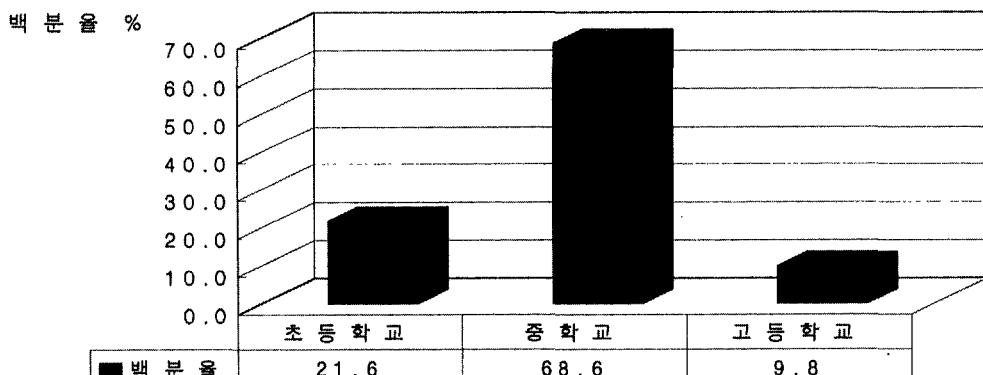


그림 7. 최초 음란물 접촉시기(초·중·고교 구분).

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만 나누어서 보면 그림 7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21.6%, 중학교에서 68.6%, 고등학교에서 9.8%였다.

이처럼 음란물은 주로 중학교 때까지 90%가 처음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고등학교에서는 9.8%에 불과하여 중학교 이전에 음란물 등의 성(性)정보 대응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를 포함하여 청소년 초기에 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대응자세를 함양해 주는 것이 긴요(緊要)하다고 사료된다.

지금도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본 학생의 76.8%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23.2%가 지금도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는 음란물을 계속 접촉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별로 음란물을 본 경험은 그림 8과 같이 남학생은 79.1%가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은 33.8%가 보았다고 하여 남녀간에 음란물 접촉경험이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두 배정도 더 많이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001$, χ^2 test).

학교 군별로 음란물 접촉유무를 알아보면 그림 9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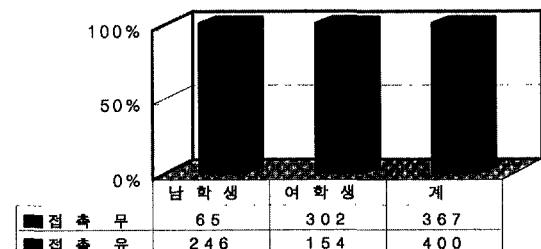


그림 8. 남녀별 음란물 접촉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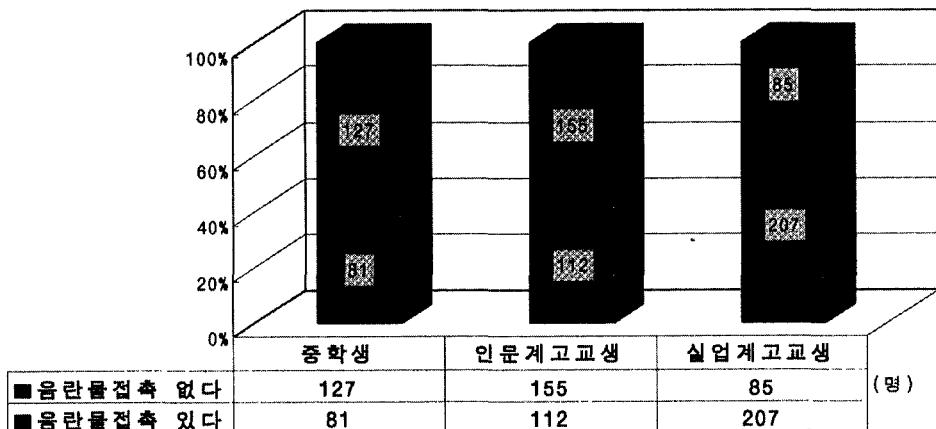


그림 9. 학교군별 음란물 접촉유무.

같이 실업계 고교생 군이 70.9%(207명), 인문계 고교생 군이 42.0%(112명), 중학생 군이 39.0%(81명) 순으로 실업계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음란물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χ^2 -test).

음란물 접촉여부를 남녀별로 나누어 학교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니 남녀별로도 학교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아래 표 9와 그림 10과 같이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는 54.6%가 음란물접촉 경험이 있으나 인문계 고교에서는 79.6%, 실업계 고교는 97.6%로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대부분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의 경우 25.2%가 접촉경험이 있으나 인문계 고교는 23.5%로 약간 낮으며, 실업계고교의 경우는 50.6%로 반수이상이 음란물에 노출되어있으므로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음란물 대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성친구에 대한 응답

이성친구가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그림 11과 같이 75.7%가 없다고 답하였다.

남녀학생별 이성친구 유무는 남학생은 31.4%, 여학생은 19.3%가 있다고 응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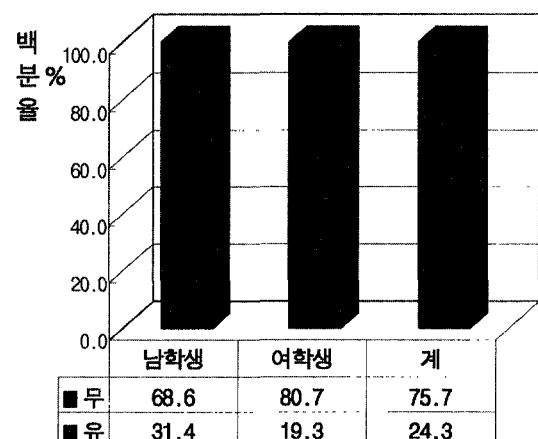


그림 11. 남녀별 이성친구 유무.

표 9. 남녀별 학교군간 음란물 접촉유무

음란물 접촉 유무	남학생				여학생				합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소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소계	
유	53(54.6)	70(79.6)	123(97.6)	246(79.1)	28(25.2)	42(23.5)	84(50.6)	154(33.8)	400(52.2)
무	44(45.4)	18(20.5)	3(2.4)	65(20.9)	83(74.8)	137(76.5)	82(49.4)	302(66.2)	367(47.8)
계	97(31.2)	88(28.3)	126(40.5)	311(100.0)	111(24.3)	179(39.3)	166(36.4)	456(100.0)	767(100.0)
유의도	d.f.=2, $\chi^2=61.255$, p=0.001				d.f.=2, $\chi^2=33.153$,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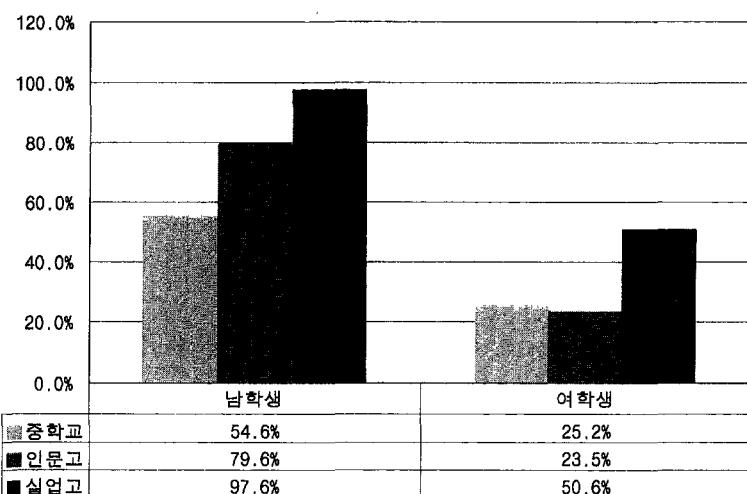


그림 10. 남녀별 학교군간 음란물 접촉 유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χ^2 -test).

학교군별로 이성친구 유무는 표 10과 같이 실업계 고교생군이 33.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인문계고 교생군이 21.1%, 중학생군이 15.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χ^2 -test).

남녀별로 학교군간 이성친구 유무의 차이가 있었다. 아래 표 11과 그림 12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7.4%, 인문계고교는 33.3%, 실업계고교는 40.8%가 있다고 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14.6%, 인문계고교 15.2% 실업계고교는 27.2%가 있다고 하

표 10. 학교별 이성친구 유무

이성친구	대상수(명)			백분율(%)		
	유	무	소계	유	무	소계
중학교	33	175	208	15.9	84.1	27.2
인문고	56	209	265	21.1	78.9	34.6
실업고	97	195	292	33.2	66.8	38.2
합계	186	579	765	24.3	75.7	100.0

표 11. 남녀별 학교군간 이성친구 유무

이성친구	남학생				여학생				합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소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소계	
유	17(17.4)	29(33.3)	53(40.8)	99(31.4)	16(14.6)	27(15.2)	44(27.2)	87(19.3)	186(24.3)
무	81(85.5)	58(66.7)	77(59.2)	216(68.6)	94(85.5)	151(84.8)	118(72.8)	363(80.7)	579(75.7)
계	98(31.1)	87(27.6)	130(41.3)	315(100.0)	110(24.4)	178(39.6)	162(36.0)	450(100.0)	765(100.0)
유의도	d.f.=2	$\chi^2=14.426$	$p=0.001$		d.f.=2	$\chi^2=9.96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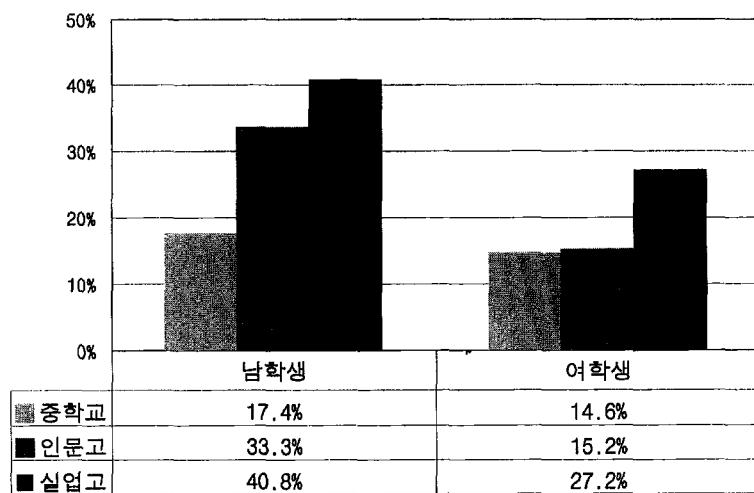


그림 12. 남녀별 학교군간 이성친구 유무.

여 중학교에서 실업계고교로 갈수록 점차 이성친구가 많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이성친구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니 그림 13과 같이 손잡기, 어깨동무 등의 신체접촉이 37.4%로 답했으며 30.8%가 신체접촉 없다고 답했고, 20.7%가 키스나 애무 등의 접촉을 한다고 했으며, 11.1%가 성관계 등의 접촉이라고 응답하여 연구대상인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성행위를 이성친구 간에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성전파질환 및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연구대상자의 에이즈지식정도

1) 교육전후 지식차이

교육전후의 에이즈지식의 차이를 교육후의 2번 <에이즈감염경로>문항의 정답점수(30점 만점)에서 교육전의 3번 <에이즈감염경로>문항의 정답점수(30점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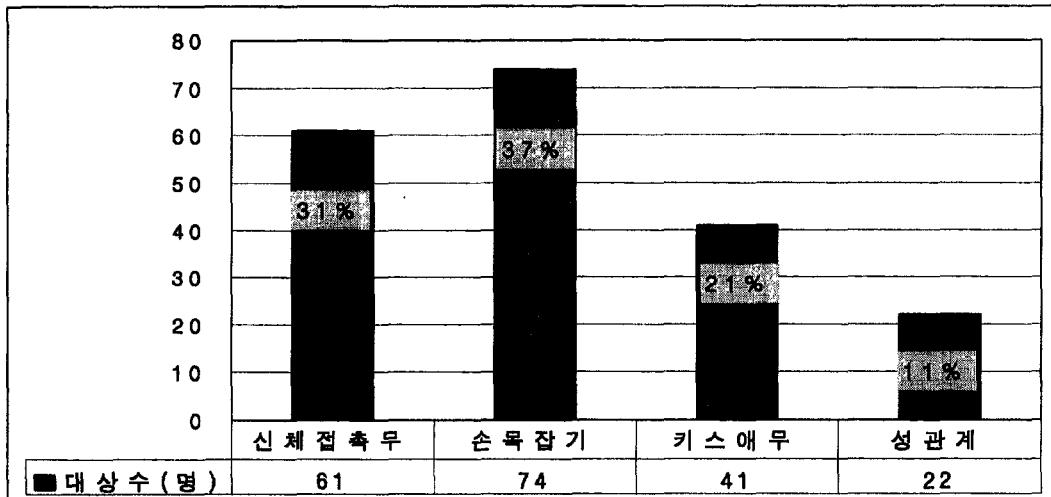


그림 13. 이성친구 친밀도.

표 12. 교육전후 에이즈 지식점수와 차이

구 분	Mean	Std Dev	Min	Max	Range	T	Prob> T
DIFF 지식차이	0.7662835	0.1985576	-20	30	50	3.8592512	0.0001

점을 뺀 점수로 정의하여 전체평균 0.7662835점이 나왔고, 표준오차는 0.1985576점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후의 지식점수 차이는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표 12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Paired T test〉.

학교군간 교육전후의 지식차이가 중학교는 1.9159 점, 실업계고등학교가 0.5387점, 인문계고등학교는 0.1103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p=0.0012$, ANOVA).

표 13. 학교군간 에이즈지식차이

학교군	대상수	지식차이평균	Value	P
중학교	214	1.9159		
인문계고교	272	0.1103	F: 6.83	0.0012
실업계고교	297	0.5386		

학교군별로 교육전후 에이즈지식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아주 유의하게 지식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실업고이며, 인문고가 가장 지식상승이 적었는데 이는 지식을 묻는 설문자체가 평이하고 혼란 질문이어서 일반적으로 지식수준이 낮은 대상에게는 교육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변별력이 낮은 문제가 출제된 탓으로 기본 지식수준이 중학교보다는 높은 인문계고교생들은 이미 알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상승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장소별로 교육전후의 지식차이가 강당과 시청각실, 방송실 모두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특히 강당이 제일 유의하고 시청각실이 다음이며, 방송실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대형화면을 위주한 시청각교육이기 때문에 대형장소인 강당이 제일

표 14. 학교군별 교육전후 에이즈지식차이

학교군	대상수	지식차이평균	표준오차	T	Prob> T
중학교	214	1.9058879	0.4422333	4.3323010	0.0001
인문계고교	279	0.1102941	0.3273056	0.3369759	0.7364
실업계고교	299	0.5387205	0.2804365	1.9210075	0.0557

지식상승이 높게 나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소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즈지식을 30점 만점으로 처리한 분석과는 별도로 에이즈지식을 묻는 <에이즈감염경로>문항자체를 문항수대로 9점 만점으로 처리하여 교육전후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5와 같이 강당 및 시청각실과 방송실의 차이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표에서 보면 교육장소별로 교육전후의 지식차이가 유의수준 0.05(5%)수준에서 강당($P=0.0028$)과 시청각실($P=0.0283$)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실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P=0.3041$) 나타나 향후 교육계획 수립시 방송실보다는 강당이나 시청각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구체적인 논의는 교육장소에 따른 교육방법별 교육효과비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aired T test).

음란물 접촉여부에 따른 교육전후 지식의 차이는

접촉해본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접촉해보지 않은 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p=0.0005$, Paired T test).

이성친구유무에 따른 교육전후 지식차이는 이성친구가 있는 군은 차이가 없었고, 이성친구가 없는 군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P=0.0001$, Paired T test).

향후교육방법에 대한 설문중 집단교육을 희망한 군은 교육전후 지식차이가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나($P=0.0041$), 소수교육을 희망한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전 성의식문항에서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 1번응답자만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교육 후 아주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P=0.0018$) 나왔다

표 19. 교육단위 선호군간의 에이즈 지식차이

교육단위	대상수	지식차이	T	Prob> T
집단교육	268	1.0902256	2.8968862	0.0041
소수교육	386	0.3674541	1.3744137	0.1701

표 15. 교육장소별 교육전후 에이즈지식차이

교육장소	대상수	지식차이평균	표준오차	T	Prob> T
강 당	152	0.9271523	0.3302416	2.8074967	0.0057
시청각실	102	1.2871287	0.4805806	2.6782783	0.0087
방 송 실	538	0.6214689	0.2618402	2.3734669	0.0180

표 16. 교육장소별 교육전후 에이즈지식차이

교육장소	대상수	지식차이평균	표준오차	T	Prob> T
강 당	152	0.1788079	0.0587479	3.0436506	0.0028
시청각실	102	0.1782178	0.0800941	2.2251068	0.0283
방 송 실	538	0.0511364	0.0497109	1.0286747	0.3041

표 17. 음란물 접촉군간의 에이즈 지식차이

음란물접촉	대상수	지식차이평균	표준오차	T	Prob> T
있다	400	0.4271357	0.2593442	1.6469840	0.1004
없다	367	1.0928962	0.3090913	3.5358366	0.0005

표 18. 이성친구 유무군간의 에이즈 지식차이

이성친구	대상수	지식차이	표준오차	T	Prob> T
있다	186	0.2173913	0.3926484	0.5536539	0.5805
없다	579	0.9688581	0.2352523	4.1183788	0.0001

표 20. '남녀모두 순결해야한다' 응답군의 교육전후 에이즈 시식차이

<남녀모두순결해야한다>응답	응답수	지식차이평균	표준오차	T	Prob> T
교육전	444	0.7900677	0.2518886	3.1365755	0.0018
교육후	594	0.8277027	0.2223302	3.7228531	0.0002

〈Paired T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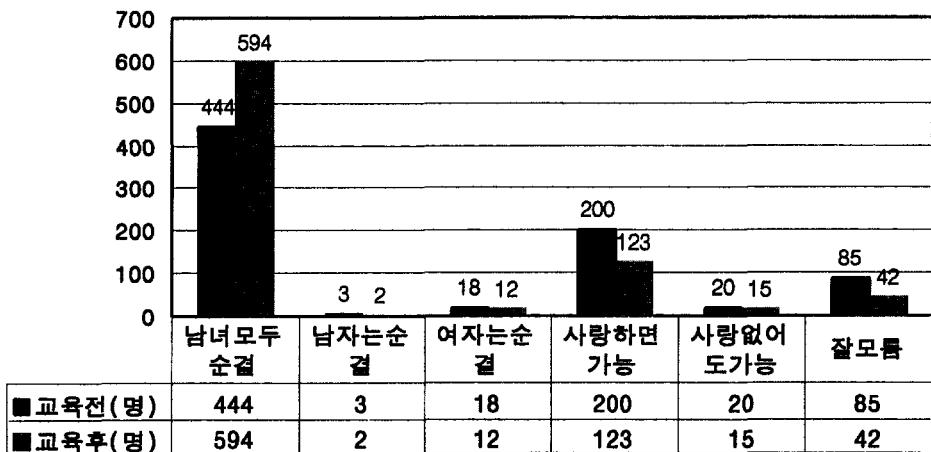
교육후 성의식문항에서 '남녀모두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 1번 응답자만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아주 유의하게($P=0.0002$) 나왔다〈Paired T test〉.

설문내용 자체가 교육현장에서 기존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제한된 교육시간 내에 용이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간소화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에이즈지식과 태도 등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정밀한 측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연구대상자의 에이즈와 성관계 의식정도

1) 교육전후 혼전성관계 의식

혼전성관계에 대해 교육전에는 58%가 '남녀모두순결을 지켜야한다'고 했으며 26%가 '사랑하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사랑없어도 가능'이 3%, '여자는 순결'이 2%, '남자는 순결'이 0.4% '잘 모름'이 11%였으나 교육후에는 '남녀모두순결을 지켜야한다'가 75%로 17% 늘어나고 '사랑하면 가능하다'가 26%에서 16%로 10%줄어들고, 다른 항목도 조금씩 감소하여 '남녀모두 순결해야한다'는 성의식변화가 그림 14, 표 21과 같이 有意味하게 나타났다($p=0.001, \chi^2$ -test). 특히 교육전에 '사랑하면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응답한 79

**그림 14.** 교육전후의 성관계 의식 비교.**표 21.** 교육전후의 혼전성관계의식에 대한 응답

혼전 성관계의식	교육전				교육후			
	응답수 (명)	백분율 (%)	누적 응답수 (명)	누적 백분율 (%)	응답수 (명)	백분율 (%)	누적 응답수 (명)	누적 백분율 (%)
남녀 모두 순결을	444	57.7	444	57.7	594	75.4	594	75.4
남자는 순결을	3	0.4	447	58.1	2	0.3	596	75.6
여자는 순결을	18	2.3	465	60.4	12	1.5	608	77.2
사랑하면 가능	200	26.0	665	86.4	123	15.6	731	92.8
사랑없어도 가능	20	2.6	685	89.0	15	1.9	746	94.7
잘 모름	85	11.0	770	100.0	42	5.3	788	100.0
유의도	$\chi^2=56.505$				d.f.=5			
					p=0.001			

표 22. 교육전후 혼전성관계의식 변화

(단위: 명)

교육전	교육후		교육후					
	합계	남녀 모두 순결	남자는 순결	여자는 순결	사랑하면 가능	사랑없어도 가능	잘 모름	결측치
교 육 전	합 계	792	594	2	12	123	15	42
	남녀 모두 순결	444	433	0	1	2	1	4
	남자는 순결	3	2	0	0	0	0	0
	여자는 순결	18	12	0	5	1	0	0
	사랑하면 가능	200	79	1	3	107	4	6
	사랑없어도 가능	20	2	0	2	5	8	3
	잘 모름	85	51	1	1	5	1	25
	결측치	22	15	0	0	3	1	3

명이 교육후에 '남녀모두 순결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등 뚜렷한 순결의식 향상을 보였다.

교육전에는 '사랑하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한 79명이 교육후에는 '남여모두 순결해야한다'로 응답해서 성의식의 뚜렷한 순결지향적 변화가 있었다. 또 교육전에 '잘 모름'을 답한 51명도 교육후에는 '남여모두 순결해야한다'로 답해 확실히 순결의식학립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면 부정적 평가와 비판을 받는 성교육기피풍조의 현실에서 상당히 이해적인 결과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더욱 심층 분석과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남학생군은 그림 15와 같이 교육전에 33.97%인

107명이 '남녀 모두 순결해야한다'고 응답했으나 교육 후 54.60%인 172명이 '남녀 모두 순결해야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전후에 유의하게 순결한 의식으로 변화되었다($p=0.001$, χ^2 -test).

여학생군은 그림 16과 같이 교육전에 74.06%인 334명이 '남녀 모두 순결해야한다'고 응답했으나 교육 후 90.24%인 407명이 '남녀 모두 순결해야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전후에 유의하게 순결한 의식으로 변화되었다($p=0.001$, χ^2 -test).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의 성의식은 거의 대부분 남녀모두 순결지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후의 변화를 볼 때, 순결의식 함양은 에이즈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며 나아가 사랑의 바람직한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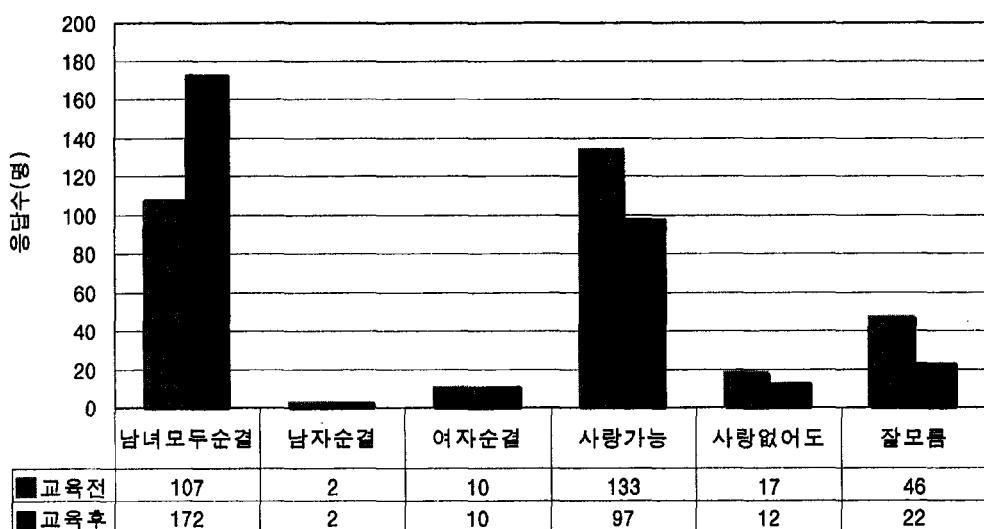


그림 15. 남학생의 교육전후 성의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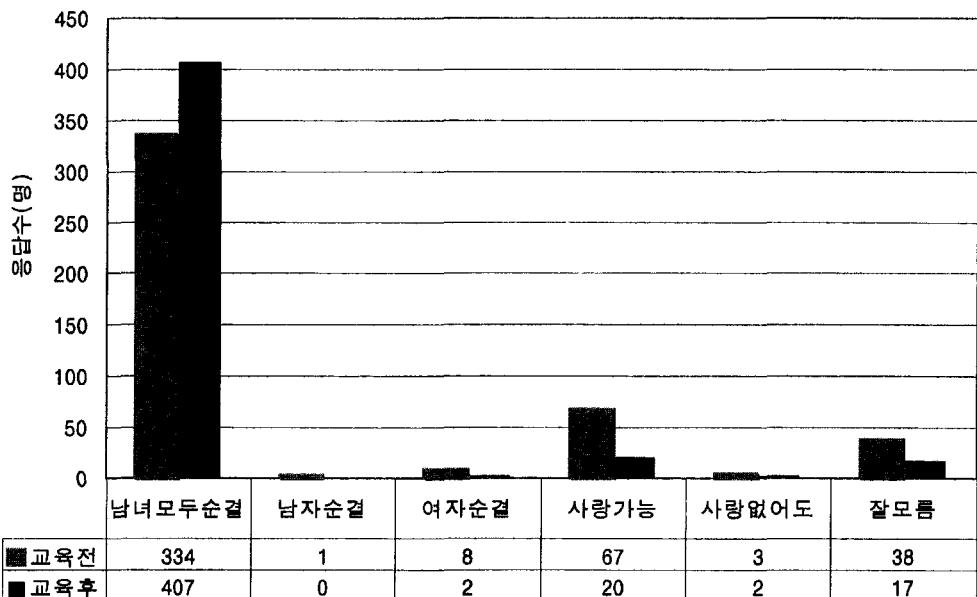


그림 16. 여학생의 교육전후 성의식변화.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권관우, 岡本真道, 1993). 과거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여성 만의 일방적 순결을 강조하여 여성을 억압했던 '왜곡된 순결'이 아니라 남여공히 특히 상호존중하는 참다운 성의식을 갖자는 연맹에서 펼치고 있는 '새순결운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녀 모두 음란물을 접촉하지 않은 군이 접촉한 군 보다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전후 '남녀 모두 순결해야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남자는 음란물접촉군은 교육전 26.8%에서 교육후 48.5%로, 비접촉군은 54.7%에서 70.3%로 나왔고, 여자는 접촉군이 62.5%에서 82.2%로, 비접촉군이 79.9%에서 94.2%

로 바뀌었다.

5. 연구대상자의 교육후 반응정도

1) 교육후 성의식 변화계기 여부

본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순결한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는가를 묻는 설문에는 그림 17과 같이 '대체로 그렇다'가 42%, '확실히 그렇다'가 29.6%로 긍정적 반응이 71.6%가 되었으며, '그저 그렇다'가 21.8%, '대체로 아니다'가 2.4%, '전적으로 아니다'가 4.2%로 나타났다.

성의식을 갖는 계기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대상들 중 1번문항(확실히 그렇다)에 답한 대상들만 교육전

표 23. 남녀별 음란물접촉유무에 따른 교육전후 성의식 변화

성별	음란물 접촉	교육	남녀 순결	남자 순결	여자 순결	사랑 가능	사랑 없이	잘 모름
남	유	전	64(26.8)	1(0.4)	10(4.2)	120(50.2)	17(7.2)	27(11.3)
	무	후	116(48.5)	2(0.8)	10(4.2)	85(35.6)	12(5.0)	14(5.9)
여	유	전	35(54.7)	0	0	12(18.8)	0	17(26.6)
	무	후	45(70.3)	0	0	12(18.8)	0	7(10.9)
	유	전	95(62.5)	0	1(0.7)	39(25.7)	2(1.3)	15(9.9)
	무	후	125(82.2)	0	0	16(10.5)	2(1.3)	9(5.9)
	유	전	235(79.9)	1(0.3)	7(2.4)	28(9.5)	1(0.3)	22(7.5)
	무	후	277(94.2)	0	2(0.7)	7(2.4)	0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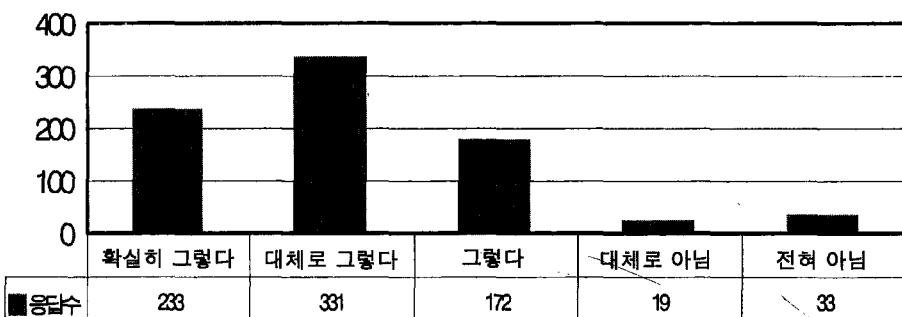


그림 17. 교육으로 순결계기 여부.

후 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나와($P=0.0015$) 교육을 통해 지식을 많이 획득한 경우에 올바른 성의식을 갖는 계기가 확실히 되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Paired T test).

2)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을 받고 난 후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림 18과 같이 '대체로 좋았다'가 44.1%, '아주 좋았다'가 23.1%, '보통'이었다'가 26.9%로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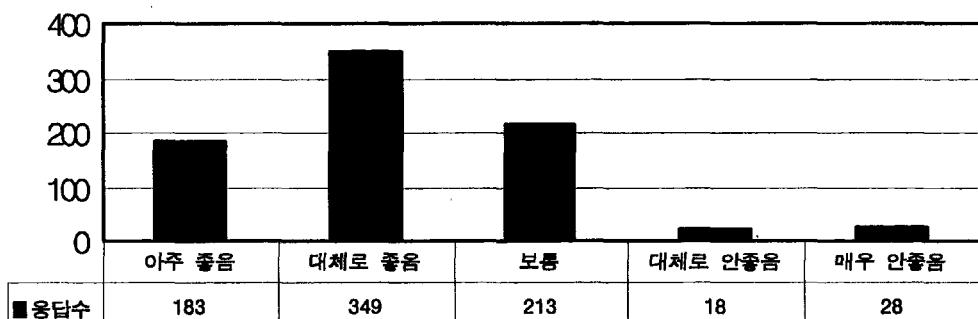


그림 18. 교육의 평가.

백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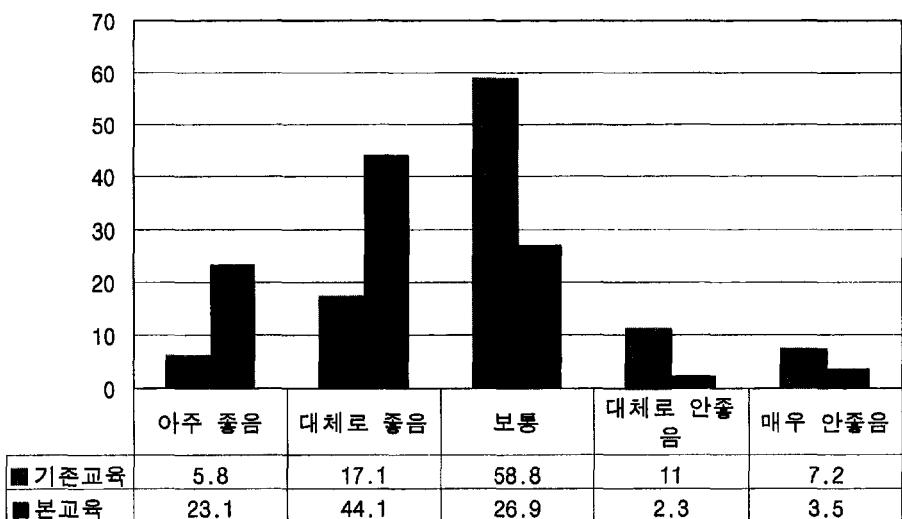


그림 19. 기준교육과 본교육의 평가 비교.

이상이 94.2%이었으며, '대체로 안 좋았다'가 2.3%, '매우 안 좋았다'가 3.5%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전체응답자의 본교육에 대한 평가와 기존교육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그림 19와 같이 기존교육에 대해서는 보통이 58.8%였는데, 본교육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음이 44.1%, 아주 좋음이 23.1%로 67.1%가 좋음, 보통이 26.9%로 나왔다. 이 평가는 기존교육보다는 본교육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chi^2=200.340$)

교육후 평가를 한 345명만을 대상으로 기존교육평가와 본교육평가를 대비해보면 그림 20과 표 24 처럼 긍정적 평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교육장소별로 교육후 평가를 보면 그림 21과 같이 강당이 '아주 좋음'이 42.1%, 대체로 좋음이 44.1%였고, 시청각실이 아주 좋음이 32.4%, 대체로 좋음이 49.0%였으며, 방송실이 16.0%, 43.2%로 나타나 강당의 경우 가장 평가가 좋았다. 이는 강당에서의 대형화면이 청중을 압도하여 시각효과가 탁월하면서 강의 형식이 강당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점등이 큰 요인으로

다고 판단된다($p=0.001$, χ^2 -test).

3) 향후 에이즈예방교육에 대한 반응

향후 교육희망의사를 말해주는 이후 에이즈예방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한다면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22와 같이 확실히 그렇다가 17.8%, 대체로 그렇다가 40%, 그렇다가 32.7%로 90.5%가 긍정적인 응답이었고, 대체로 아니다 3.8%, 전적으로 아니다가 5.7%로 나타났다.

4) 이후 교육방식에 대한 선호도

이후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단위는 59%(386명)가 소수그룹교육을 원했으며, 41%(268명)가 집단교육이 좋다고 답했다.

이후 교육교재는 그림 23과 같이 비디오활용이 65.2%, 슬라이드활용이 27.9%, 책과 칠판활용이 3.9%, OHP활용이 3%로 응답하여 영상매체 같은 시각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업방식도 토론식강연이 58.7%(369명), 주입식강연이 41.3%(260명)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토론식 수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업방식 응답군별 교육전후 지식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해보니 강사의 주입식강연을 희망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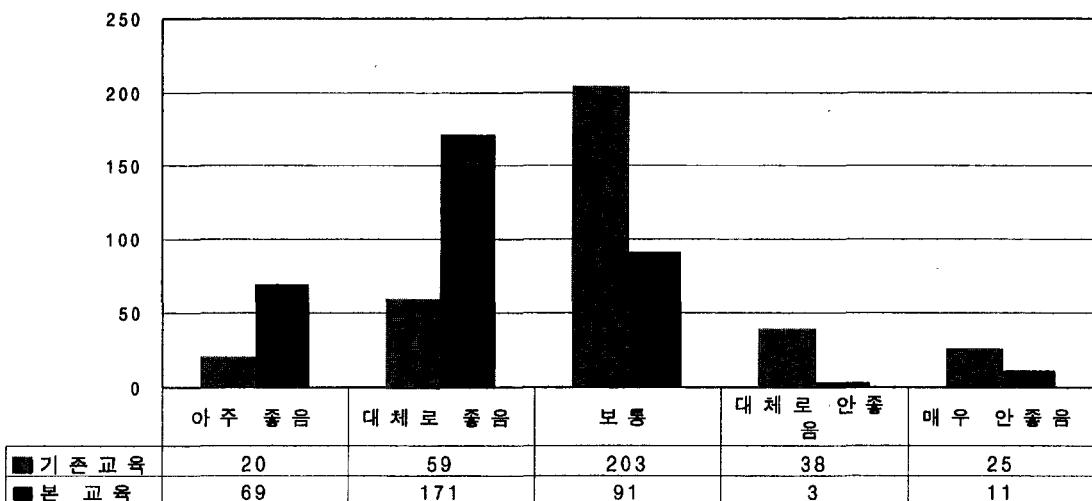


그림 20. 평가응답자의 기존교육과 본교육 평가 비교.

표 24. 교육후 평가응답자의 기존교육과 본교육평가 비교 벅분율

교육평가	아주 좋음	대체로 좋음	보통	대체로 안좋음	매우 안좋음	유의도
기존교육	5.8	17.1	58.8	11	7.2	$\chi^2=159.506$
본 교육	20	49.57	26.38	0.87	3.19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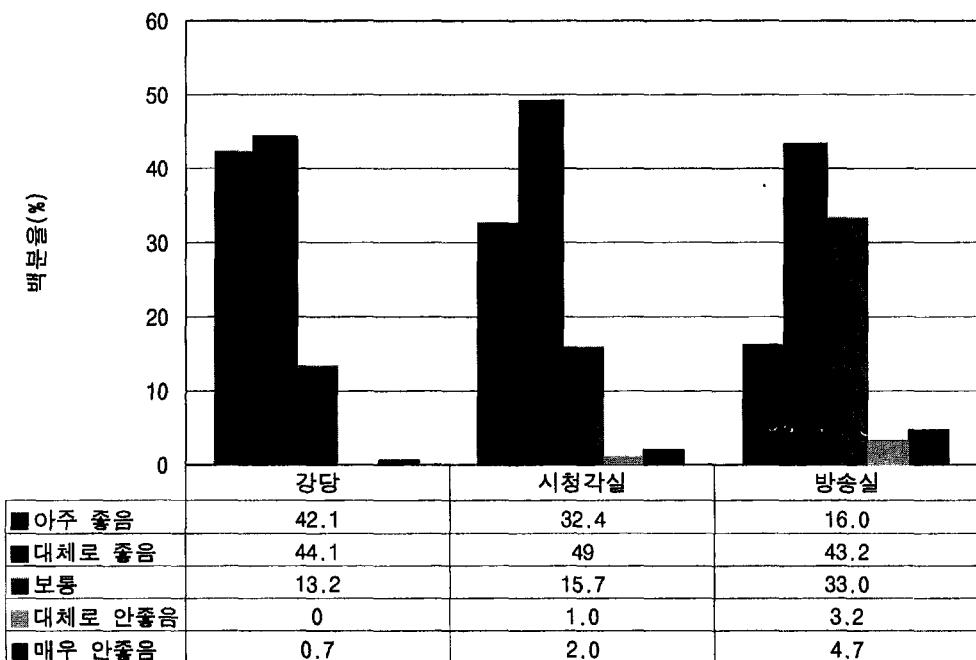


그림 21. 교육장소에 따른 교육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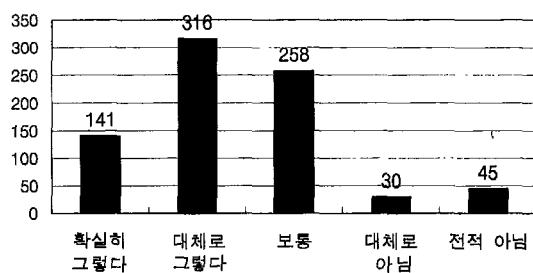


그림 22. 향후 교육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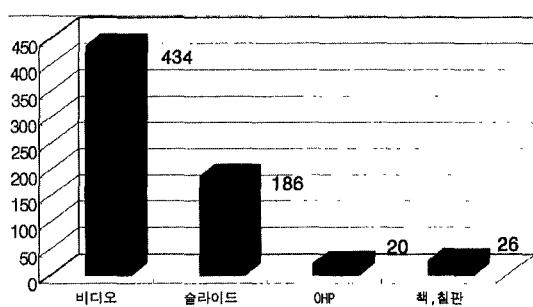


그림 23. 향후 교육 교재.

들이 평균 지식차이가 0.1843으로 토론식 강의를 선호한 응답군의 0.01639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P=$

0.0128) 나타났다. 이는 강사의 강연을 통해 많은 지식득과 교육효과를 체험한 대상들은 같은 형식의 강사위주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Paired T test〉.

향후 에이즈예방교육을 어디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그림 24와 같이 외부전문가가 45%, 학교가 25% 언론기관 21%, 가정부모 4%, 동료 4%, 기타 1% 순으로 나왔다. 이는 강사의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얻은 대상들은 역시 다음에도 외부전문가의 강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향후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면 좋겠는가라는 설문에 응답한 대상중 외부전문가(2번 문항)($P=0.0288$)과 언론기관(5번 문항)($p=0.0388$)에 답한 대상들만이 교육전후의 지식차이의 평균점수가 올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aired T test〉.

5) 보완점 및 건의사항

보완할 점이 있느냐는 설문에 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수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최신 사진, 증상, 감염경로 등의 시각적 자료보충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지루하다고 한 경우도 있었으며, 강의를 통해 도덕적 부담감을 느낀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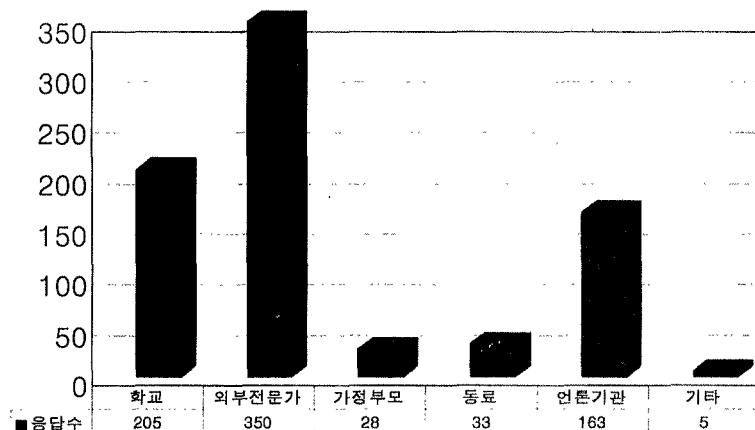


그림 24. 향후 교육기관.

있었고, 학생위주의 구체적인 교육을 원하기도 했으나, 또한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해 주기를 바란 경우도 있었다.

5. 요약 및 결론

1.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은 에이즈예방 교육전보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교육후에 에이즈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홍보교육장소별로는 방송실보다는 강당과 시청 각실에서는 더욱 유의하게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생들중에 음란물을 접촉해 보지 않은 군이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에이즈지식수준이 음란물을 접촉한 군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4. 학생들중 이성친구가 없는 군이 교육전보다 교육후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5.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음란물접촉경험이 있는 학생군보다는 없는 학생군이 '남녀모두 순결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육전보다 교육후 순결의식방향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변화했다.

6. 교육전 성관계의식문항의 '남녀모두 순결해야한다'(1번항목) 응답자는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나와 교육전보다 교육후 확실히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7. 교육후 성관계의식문항의 '남녀모두 순결해야한-

다'(1번항목) 응답자는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나와 교육전보다 교육후 확실히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8. 교육후 올바른 성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는가의 문항의 '확실히 그렇다'(1번항목) 응답자는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유의하게 나와 교육을 통해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경우에 올바른 성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9. 학생들은 홍보교육후 교육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23.1%가 아주 좋았다, 44.1%가 대체로 좋았다, 보통이 26.9%로 보통이상 긍정적 평가가 94.2% 부정적 평가가 5.8%였다.

10. 학생들은 향후 교육희망의사에 있어서 90.5%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의사를 나타냈다.

11. 향후 교육방식 선호에 있어서 집단교육을 원한 군에서 교육전후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2. 향후 수업방식에 있어서 강사의 주입식강연을 희망한 군이 토론식을 희망한 군보다 교육전후 지식차이가 높아 교육을 통해 지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학생들이 강연식 교육을 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13. 향후 교육기관은 외부전문가와 언론기관을 희망한 군이 교육전후 지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4. 실업계고교에서 남녀 모두 다른 학교군에 비해서 음란물접촉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왔고 이성친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은 중학교시절에 90% 정도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100% 접촉하는 것으로 나왔다.

16. 음란물접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17. 이성친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이 있다고 응답했다.

18. 중고등학생들중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 11.1%가 성관계 등의 접촉을 한다고 했으며, 20.8%가 키스나 애무 등의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6. 제 언

1)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홍보교육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육장소는 방송실보다는 강당이나 시청각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육신청시 조정해야 한다.

3) 중고등학생들중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처럼 이성친구가 없거나 음란물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교육효과가 높게 나오므로 이러한 대상 위주의 교육을 치중해야한다.

4) 성경험이 없을수록 교육효과가 높게 나와 성경험없는 저학년 학생위주의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육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야한다.

5) 연령이 높아지고 성경험이 많을수록 주입식교육 보다는 소수단위의 토론식 교육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교육신청시 성경험 있는 대상은 별도로 구분하거나 조정해야한다.

6) 성경험이 있는 대상을 교육할 때는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여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교육대상이 수용 가능한 토론식과 같은 개방적 교육방법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성경험이 있는 대상들에게는 순결지향적 교육이 효과가 감소하므로 질병예방차원의 실질적 교육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중학교 이전에 음란물에 대한 판단능력 함양과

그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성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9) 이성친구와 성접촉을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질병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에이즈예방교육이 필요하다.

10) 인문계고교보다는 실업계고교에서 음란물대응 교육과 성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UNAIDS: AIDS epidemic update: December 1998.
2. UNAIDS: Young People and HIV/AIDS. UNAIDS Briefing Paper. Feb. 1999.
3.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현황. 1999.3.31.
4. 권관우: 전세계 청소년 1분에 6명 에이즈 감염-2천년부터는 아시아가 에이즈 최대 피해지역된다. 새교육. 통권 535호. 1999년 5월. pp. 84-92.
5. 박인혜: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인 도전. 간접신보. 제4면. 1994.11.10.
6. 이정은: 서울시 일부 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위험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7. 정경균: 서울시내 남녀고등학생의 성행태조사연구. 한국 에이즈연맹. 1996.4.
8. 손인숙: AIDS 교육을 통한 지식 및 태도 변화연구-인천 시내 공고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학교보건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9. 김정순: 에이즈의 효과적 예방 및 관리전략. 에이즈전문 상담원 교육자료집. 1998.
10. R. L. Scheaffer et. al.: Elementary Survey Sampling. 5th. Duxbury Press. 1996.
11. 박형종, 김공현, 김광기: 보건교육-계획, 행동이론, 평가를 중심으로-. 신광출판사. 1997.
12. 박형종, 임재은, 김대희: 보건교육원리-보건 행태이론 및 건강증진론을 기반으로-. 신광출판사. 1997.
13. 김화중 외: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수문사. 1997.
14. 김충련: SAS라는 통계상자. 데이터리서치. 1994.
15. 이승우 편저: 통계학의 이해-보건학, 의학, 생물학 관련 자료 중심-. 자유아카데미. 1994.
16. 권관우, 岡本眞道: AIDS 우리곁에 다가와 있다. 서울 도서출판 아하. 1993.